
대한민국 아동, 놀이를 말하다



1. “모든 국민이 아동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는 충분히 놀아야 한다고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충분히 쉴 시간과 놀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주세요” (이승현, 광주, 1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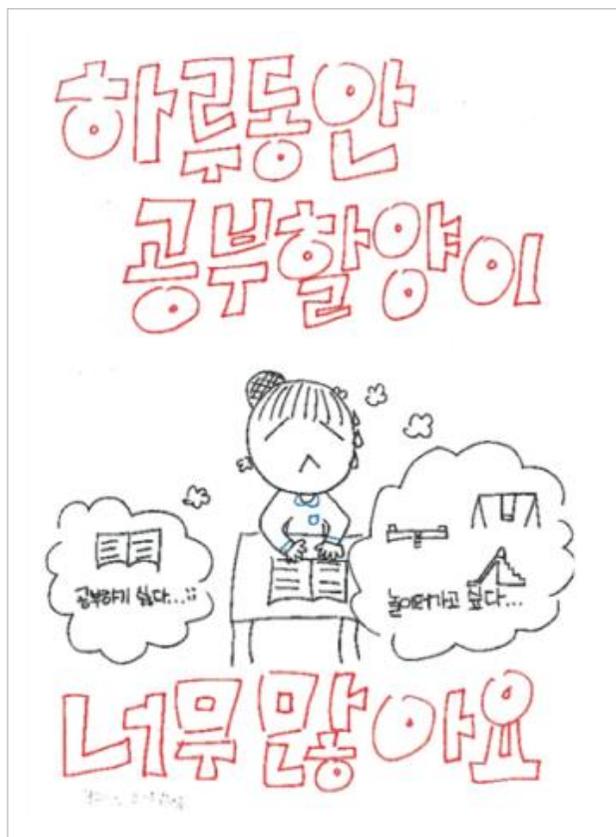
“많은 분들께서 '너희 나이 때는 노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말로 놀게 해주시는 걸까요? 실제로는 '지금 공부를 해야 이다음에 성공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놀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공부만 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공부와 놀이를 적당히 해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세요” (김민석, 경북, 14세)

“집에서 노는 걸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노는데 옆에 있는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시끄럽다고 혼났어요” (이혜원, 부산, 14세)

“어른들은 노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노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논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것도 아니죠. 제발 우리를 위해서 노는 것을 중단 시켜야 한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주시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놀이 시간을 안주고, 놀이 공간을 안 만들어주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고예원, 경북, 13세)

“현재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외국학생들에 비교해서 여가,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동에게 쉴 시간을 주고,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동만의 공간도 더 만들어주세요” (이희수, 경기, 17세)

2. “부족한 놀이 시간과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현실을 개선해 주세요”



“공부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요. 영어, 수학, 바둑, 피아노학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까지 다녀요. 시간이 없어서 저녁밥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주먹밥이랑 먹어요. 그것도 혼자서 먹을 때가 많아서 외로워요. 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불쌍해요. 친구들이랑 더 많이 만나 얘기도 하고 놀고 싶은데 친구들과 놀려면 학원에 가야 해요. 이런 게 슬퍼요” (홍윤아, 경기, 1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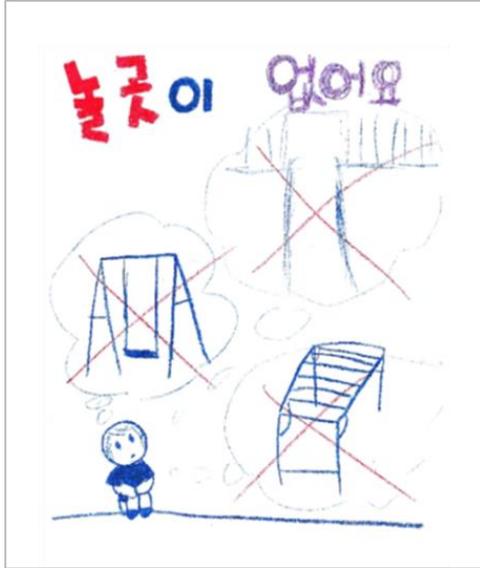
“학교, 학원 숙제가 많아서 집에서 놀 시간이 부족해요. 쉬는 시간에도 숙제를 하느라 놀지 못해요” (정동연, 서울, 11세)

“시간표에 놀이 과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노는 시간은 짧고, 수업은 너무 길어요” (정의수, 전북, 12세)

“복도청소, 학급문고 정리, 게시판 정리 등을 하면 쉬는 시간이 끝나버려요. 쉬는 시간이 부족해서 학교에 있는 동안도 쉬거나 놀지 못해요” (김성현, 전북, 11세)

“부모님이 일찍 퇴근해서 다 같이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심윤정, 강원, 10세)

3. “모든 곳에서 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네는 줄이 낡아서 언제 끊어질 지 모르고 그네를 타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정글 줄도 오래돼서 다칠 것 같아요. 빨리 고쳐주세요” (최단비, 광주, 12세)

“어린이가 노는 놀이터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요. 미끄럼틀 밑에 담배꽂이도 버리고 가는데요. 제발 안 그러게 해주세요. 어린이가 노는 놀이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세요” (김수현, 대구, 13세)

“가로등을 설치해서 밤에도 환하고, 안전요원이 있어서 보호해줄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해요” (양승주, 대구, 11세)

“학교 안에 우리가 다니는 길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차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해요” 이수현(부산, 12세)

“놀이터 근처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윤아, 부산, 1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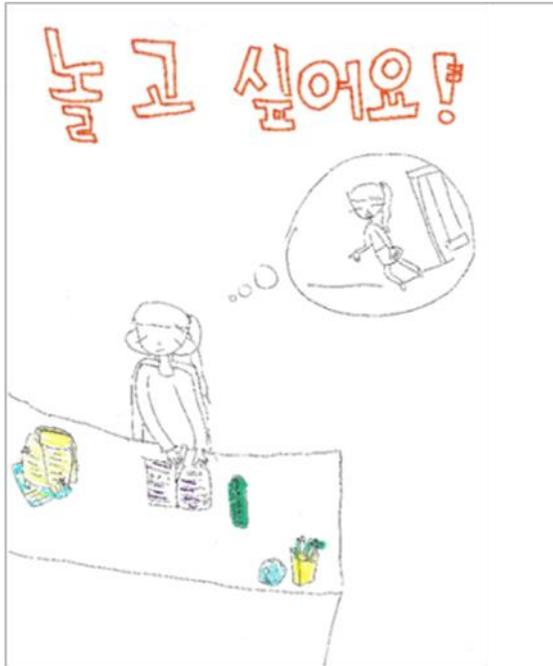
4. “안전하면서 모험도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안전하기만 하니까 유치한 거예요. 조금 스릴 있는 놀이터였으면 좋겠어요.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는 처음에 놀다가 재미없어서 안 놀아요. 그래서 애들이 없어요. 미로같이 복잡하고, 미니 어드벤처 같은 놀이터가 생겨서 노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임세민, 전북, 10세)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실제로 놀이기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쇄했어요. 위험한 놀이기구를 그냥 폐쇄하기 보다는 안전하면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박찬진, 서울, 13세)

“학교 모래사장이 고양이랑 강아지가 똥싸고 그래서 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더러운지도 모르고 애들이 계속 놀아요. 관리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송현민, 대구, 11세)

5. “장애, 지역, 경제 수준,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신나게 놀 수 있어야 해요”



“놀 권리는 시내 쪽이나 도시 쪽에서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마을에 사는 우리들의 놀 권리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 많이 없어서 점점 갈 곳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방의 작은 마을 에도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서린, 경북, 1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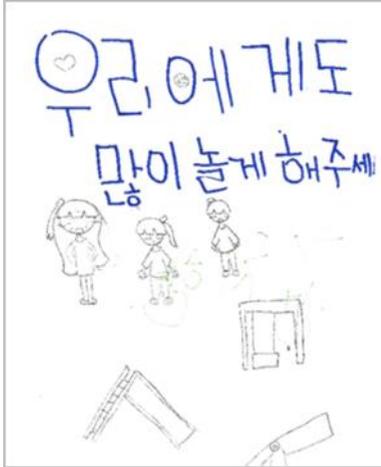
“학교에 고학년 여자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운동장은 남자 아이들이 차지해서 축구를 하고, 유치원생이나 저학년들이 놀이터에서 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주효민, 경북, 13세)

“놀이터에서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도 함께 놀 수 있어야 해요. 제가 꿈꾼 놀이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함께 놀 수 있어요” (박경진, 서울, 8세)

“어린이 놀이시설, 예를 들면 어린이 야구장, 놀이터, 놀이동산 등을 무료로 많이 만들어서 모두가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입장료 때문에 못 놀면 슬프잖아요” (하상규, 경남, 12세)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확보해주세요. 청소년들이 놀이터에서 놀면 꼬마 애들이 다칠까 봐 불안하거든요” (장하나, 서울, 17세)

6. “더 많은 예산을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써주세요”



“아동복지정책 및 예산을 늘려주세요! 특히 우리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김가윤, 경기, 14세)

“아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과 설 수 있는 곳은 정말 별로 없잖아요” (박희주, 서울, 13세)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중에서 아동들에게도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대해주세요. 특히 아이들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에 신경을 더 써주세요” (장종문, 서울, 18세)

7. “놀이 관련 정책을 만들 때에는 아동의 목소리를 꼭 경청해 주세요”



“아동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아동의 참여를 늘리게 되면 어른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어른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완, 부산, 12세)

“아동과 관련된 일은 아동에게 물어 봐주세요. 우리에게 안 물어보고 어른들이 다 결정하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동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박정훈, 광주, 17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주세요. 어른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 말고 아이들의 눈으로 봐서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박규관, 서울, 18세)